

나주축협 조합장 선거 '후보비방 글 살포' 훈탁 가열

조합원 A씨, 1425명에 발송 나주축협 "선관위 조사 의뢰" 발송자 "조합원 알권리" 해명

나주축협이 오는 8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비방 문자를 살포하는 등 훈탁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나주축협은 선관위에 행정조치를 의뢰했으며 신고를 접수한 경찰도 조속히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일 나주축협 등에 따르면 조합원 A씨가 조합원 1425명에게 특정 후보 B씨를 비방하는 A4 3쪽분량 문서를 다량으로 발송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후보자 B씨측은 지난 달 28일 나주경찰에 조합원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명예훼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나주축협도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A씨에 대해 행정조치를 의뢰했으며 선관위도 조사에 나섰다.

조합원 A씨는 지난 2월21일자 나주우체국 소인이 찍힌 A4용지 3쪽분량 문서에 특정후보자 B씨에 대한 5가지 항목을 지적하는 글을 작성해 나주축협 조합원 1425명에게 발송한 혐의다.

내용을 보면 △공약 불이행 건 △직무정지 2회 받았지만 반성의 기미가 없다

△동강면 소재 토비자원화용 토지 잘못 구입해 축협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 △산포면 소재 하나로마트 부지 매입 건 △나주축협 기부장장 운영 건 등 5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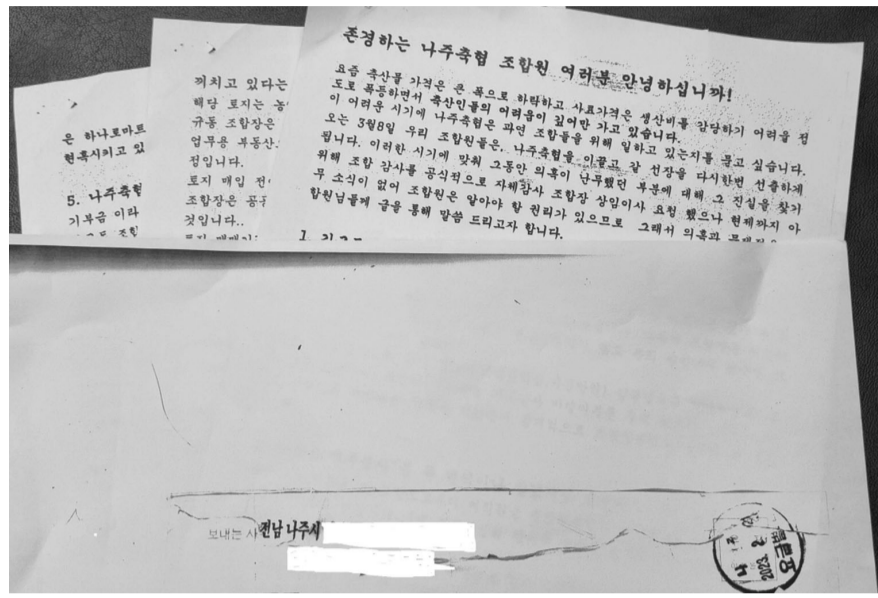
글 하단에는 A씨의 주소, 인적사항, 연락처 등이 있고 지난 2월20일 작성한 것으로 돼 있으며 나주축협에 공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축협은 나주선관위 질의 회신을 받아 지난 2월27일 전 조합원 1497명에 나주축협 소식지에 A씨 글에 대한 해명 등 내용을 기재했으며 이미 발송했다고 축협 관계자는 밝혔다.

해당 소식지에는 조합장 직무대행, 상임이사, 이사 7명, 감사 1명 등 서명·날·무인이 된 채 A씨가 주장했던 5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등 해명이 돼 있다.

축협측은 A씨가 주장하는 5가지 중 1가지만 사실이고 4건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며 허위라는 취지로 소식지에 해명성 글을 게재했다고 반박했다.

나주축협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A씨의 행위가 '나주축협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한 바, 이에 관해 제3자 선거운동 위반 사례로 추정되오니 빠른 행정조치 바랍니다"라고 나주시선관위에 '조합장 선거관련 행정조치 요구' 문서를 발송해 조사의뢰를 했



나주축협이 오는 8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비방 문자를 살포하는 등 훈탁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다"고 밝혔다.

B 후보자 측 관계자는 "A씨가 과거 나주축협조합장 선거 때 다른 후보 C씨 운 전기사를 했으며 현재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특정후보 B씨를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B씨에 대해 사실 및 허위사실 내용으로 A4 용지 3쪽 분량으로 비방하는 글을 작성해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A씨의 행위는 선거법위반이자 명예훼손이며 조합원들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입수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다"고 주장

했다. 이어 "나주경찰서에 고발장 제출했으니 철저한 수사로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선거를 겨냥한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며 조합원들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때를 이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나주축협 조합장선거에 김규동 현 조합장(기호1번), 나상필 조합원(기호 2번)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글·사진=나주 박송엽 기자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속도 해남군, 내년 말 준공

해남군이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남군은 삼산면 평활리 일원에 8.8ha 규모의 제2스포츠 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사업비 181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올 상반기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제2스포츠타운은 정식 규격의 축구장 1면과 야구장 1면, 복합구장 1면, 부대시설 등으로 조성된다.

군은 현재 운영 중인 우슬체육공원 내 대단위 스포츠타운과 함께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신안 여행상품 출시 잇따라 온라인 상품만 60여개

신안 퍼플섬이 관광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면서 지역의 관광지를 찾는 전국 여행자들의 상품 출시도 쏟아지고 있다.

1일 신안군에 따르면 그동안 흑산·홍도 중심의 10여 개에 불과했던 지역의 여행상품이 불과 1~2년 사이에 주요 검색 사이트 온라인 상품으로만 60여 개에 이르고 있다.

안좌면 '퍼플섬'과 증도면의 '순례자의 섬'은 20개 여행사에서 25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선정한 외국인 대상 2021년 우수 여행상품으로 '아름다운 섬티아고 섬여행 2박 3일'이, 내국인 대상 국내 우수 여행상품에 '1004섬 신안군, 컬러풀 섬투어 5일' 등 7개가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 한 여행사의 'KTX 다도해 신안-섬티아고 & 증도 & 퍼플섬 트래킹' 투어가 130만원의 고급상품으로 12월 4차까지 출시될 정도로 신안군 관련 여행상품은 인기다.

신안=홍일갑 기자

"日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여수시의회 촉구

여수시의회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1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수산발전 정책연구회 소속 김철민 대표의원이 전국 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최근 전북에서 열린 전국도 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1분기 정기회의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다. 이 결의안은 도서 지역 기초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 의원은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세웠다"면서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경제적인 이유로 외면하며 세계적 재앙을 불러일으킬 해양 방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만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는 결의문을 일본 대사관 등에 전달하고 관계 부처를 방문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3월 이벤트 '틀린 기차마을 찾기'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곡성군은섬진강기차마을이 '기차마을 탐험해 봄'을 주제로 3월 이벤트를 매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벤트 중 '틀린 기차마을 찾기'는 틀린그림찾기 게임을 기차마을 곳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종이 속에 사진 두 장을 비교해 틀린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아닌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그림과 다른 부분을 찾아내면 된다.

게임에 활용할 미션카드는 소망정, 중국정원, 꼬마광장, 치치뿌뿌놀이터이며 실제 모습이 변형된 사진을 행사부스에서 받은 뒤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게임 참가자는 게임 장소 4곳에 직접 가서 실제 모습을 보고 미션카드와 다른 부분을 5개씩 찾아 정답을 표시하면 된다.

곡성=김대영 기자



무안군, 슬레이트 철거 지원 무안군이 군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무안군 제공

전국 최초 '해양쓰레기 실명제' 영광군, 불법투기 차단

영광군이 전국 최초로 '해양쓰레기 실명제'를 시범 도입해 제도 안착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1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부터 법정면 어촌계를 시작으로 '해양쓰레기 실명제'가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어업 활동하는 동안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소속 어촌계명이 인쇄된 전용 마대를 사용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악취와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효율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 재활용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적극적인 소통으로 '해양쓰레기 실명제' 안착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목포시 '새단장' 목포근대역사관 2관 재개관

목포시가 지난 2006년 개관한 이후 16년이 경과하면서 노후화된 목포근대역사관 2관을 새단장해 28일 재개관했다.

목포근대역사관 2관은 1920년 일제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로 건축돼 일제식민지 수탈의 상징으로 해방 후 조선해안경비대, 해군에서 사용하다 빈 건물로 남아 철거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시민들의 반대로 보존된 건물은 1999년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 받은 후 2006년부터 목포근대역사관으로 개관, 각종 근대사진 등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목포시는 휴관기간 동안 노후된 내부 바닥과 가벽 등을 보수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조기 등을 신설했다. 목포근대역사관 2관 건물 변천사에 맞



목포근대역사관 목포시 제공

춰 1층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과 역할, 조선인에 대한 횡포와 그에 따른 저항, 해방 후 조선해안경비대와 해군에서 사용한 사진 등을 전시했다. 일제강점기에 사용된 '조선총독부제작 저울'과 '토지측량기'가 전시됐으며, 해

목포=정기찬 기자